

‘박언립(朴彦立) 이야기’의 변이양상 (變異樣相)과 의미

- 충노담(忠奴談) 연구 시론 -

정 준 식*

차 례

I. 序 論	IV. ‘朴彦立 이야기’에 나타난 士大夫의 奴婢觀
II. 忠奴談의 敘事的 傳統과 ‘朴彦立 이야기’	V. 결 론
III. ‘박언립 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	

I. 序 論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에는 노비 관련 이야기가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노비란 원래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의의가 인정되는 바, 주인에 대한 노비의 태도와 행위를 기준으로 삼을 때 노비이야기는 忠奴談, 逆奴談, 忠奴·逆奴談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 忠奴談은 주인을 충심으로 섬긴 노비에 관한 이야기이고, 逆奴談은 주인을 배반하거나 주인에게 대항한 노비에 관한 이야

* 부산외국어대학교 강사

1) 여기서 충노는 ‘忠奴’와 ‘忠婢’를, 역노는 ‘逆奴’와 ‘逆婢’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기이며, 忠奴·逆奴談은 忠奴와 逆奴를 함께 설정하여 이들의 행위를 대비적으로 보여 주는 이야기이다. 逆奴談에 관해서는 그간 몇 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²⁾ 忠奴談 및 忠奴·逆奴談에 관한 논의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본고는 忠奴談 연구를 위한 예비작업으로 ‘朴彦立 이야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박언립 이야기’는 노복 朴彦立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의 다양한 삶의 행적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고 있는 작품인데, 문헌전승 과정에서 10여 종의 類話를 파생하였고 노비에 관한 編者의 시각도 분명하여 가히 忠奴談의 白眉라 일컬을 만하다. 여기서는 忠奴談의 서사적 전통과 관련지어 ‘박언립 이야기’의 형성 맥락을 알아보고, 각 類話들을 대비적으로 살펴 ‘박언립 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를 밝힐 것이며, 노비를 바라보는 사대부의 시각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박언립 이야기’의 주인공 朴彦立은 延陽君 李時白(1592~1660)의 妻家 奴僕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가 실존 인물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忠奴談에 해당되는 여러 작품들이 대체로 實事를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이야기 역시 박언립의 실제 행적을 토대로 삼아 이야기로 꾸민 것이 아닐까 한다.

Ⅱ. 忠奴談의 敘事的 傳統과 ‘朴彦立 이야기’

忠奴談은 주인을 중심으로 섬긴 노비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대체로 주인을 위기에서 구한 이야기, 주인의 원수를 갚은 이야기, 주인을 의리로써 섬긴 이야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 이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면서 ‘박언립 이야기’와의 관련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역노담 중에는 도망노비의 추세를 둘러싼 주인과 노비 사이의 대립·갈등을 형상화한 것이 많아 그동안 학계에서는 推奴談, 推奴系 漢文短篇, 推奴系 野談이란 이름으로 몇몇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관해서는 김석배, 「추노계 한문단편 연구」, 『문학과학어』6(문학과학어연구회, 1986); 김정석, 「문학작품에 나타난 신분대립 고찰」, 『계명어문학』5(계명어문학회, 1990); 정준식, 「추노계 야담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초전장관전교수정년기념 국문학논총』(세종출판사, 1995) 등을 참조.

먼저, 주인을 위기에서 구한 이야기에는, <朝官姓吳者>(《필원잡기》), <高得宗奴>(《용재총화》), <權可述奴>(《어우야담》), <具壽永奴>(《기재잡기》), <金禮奉>(《대동기문》), <尹良>(《어우야담》), <貴家奴>(《태평한화》), <許生奴>(《백야기문》), <訥催의 奴>(《삼국사기》), <愛男>(《번암집》), <一升僕>(《계서야담》) 등이 있다.

<朝官姓吳者>는 주인 吳氏가 臧犯으로 감옥에 갇히자 그의 노복이 부인 복장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주인을 내보내고 자기가 대신 갇혔다가 일이 발각 되었으나 세종이 그 종을 의롭게 여겨 赦免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세종 때에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으로 實錄에도 나와 있다.³⁾ 실록의 경우, 奴가 주인을 대신해 감옥에 갇힘으로써 獄吏를 속여 脫走를 도운 것은 <朝官姓吳者>와 같지만, 구체적인 탈주의 경위가 다르며 세종이 그 종을 용서해주었다는 기록은 없다. 사면 부분은 서거정이 덧보탠 것일 터, 의로운 노비에 대한 보상을 강조한 이 부분은 모범적인 노비가 그만큼 많이 나와주기를 갈망하는 편자의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읽혀진다.

<高得宗奴>, <權可述奴>는 바다를 건너던 중 배가 부딪쳐 다른 사람은 모두 죽고 주인과 노비만 판자에 몸을 의지한 극한상황에서, 노비가 주인을 위해 잡고 있던 판자를 놓음으로써 주인을 무사히 살려냈다는 내용이다. 두 작품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은 《어우야담》의 <권기술노>가 《용재총화》의 <고득종노>를 변용한 것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具壽永奴>, <尹良>, <金禮奉>, <貴家奴>, <許生奴> 등도 주인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의 노비가 슬기롭게 대처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점 앞의 작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訥催의 奴>, <一升僕>, <愛男>은 모두 전쟁이란 급박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인을 중심으로 섬긴 노복에 관한 이야기이다. <눌최의 노>는 신라의 장군 訥催가 백제와의 싸움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의 노복이 주인을 도와 끝까지 싸우다가 주인과 함께 죽었다는 내용이다. <일승복>은 평소 쌀 한 되를 먹던 김여물의 노복이 임진왜란 때 자원해서 주인을 따라가

3) 실록에 의하면 주인은 당시 內資寺尹으로 있던 吳明義이며 장죄를 범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그는 문종조에 재산분배로 孽弟와 다투다가 捕告되었으나 赦令이 있어 석방되었다. 『세종실록』권78, 세종 19년 8월 기사조 및 『문종실록』권12, 문종 2년 5월 신축조.

모시다가 주인이 죽자 몸매 수십 군데의 상처를 입고도 주인의 시신을 수습해 先塋에 安葬했다는 내용이다. <애남>은 임진왜란 때 蒙塵하던 선조 일행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임진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이광정의 노복 애남이 초가집에 불을 질러 길을 밝힘으로써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주인을 위기에서 구한 이야기는 특정 상황에서 행한 노비의 특이한 행적이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서사성이 부족하고 이야기 자체의 흥미도 떨어진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인을 위해 충을 실천한 노비의 사례는 主奴關係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구실을 한다. 主奴關係는 君臣關係와 같아서 노비는 주인에게 절대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조선조 사대부들이 마련해놓은 주노관계의 이데올로기였다. 위의 작품에 등장하는 노비는 한결같이 그 같은 사대부적 계급이데올로기에 매몰된 모습을 보인다. 편자들은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들을 모범적인 노비의 사례로 기술함으로써 노비에 대한 그들의 기대치를 재확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인을 위기에서 구한 이야기에는 <柳灌의 婢>(《지봉유설》), <鄭縑과 어느 계집종>(《기문총화》), <忠僕 萬石>(《기문총화》) 등이 있다. <유관의 비>는 乙巳士禍로 柳灌(1484~1545)이 賜死되고 그의 婢 甲이 鄭順命(1484~1548)에게 몰수되었는데,⁴⁾ 甲이 주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痲疫로 죽은 사람의 팔을 구해 정순명의 베개 속에 넣음으로써 그를 역질에 걸려 죽게 했다는 내용이다. <정온과 어느 계집종>은 어느 계집종이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가던 정온에게 부탁하여 주인을 살해한 안주인의 姦夫를 죽여 원수를 갚았다는 내용이다. <충복 만석>은 실제 사건에 토대를 둔 이야기로 실록에도 나와 있다.⁵⁾ 만석은 박씨 부인이 사집을 때 태려온 증인테 박씨의 남편이 일찍 죽자 이웃 양반 金祖述이 박씨의 미모를 탐해 박씨와 사통했다며 헛소문을 낸다. 박씨가 관청에 알렸지만 김조술의 뇌물을 받은 관원들이 말을 듣지 않아 박씨는 마침내 자결한다. 사건이 4년 동안 해결되지 않자 만석이 상

4) 다른 야담집에는 ‘甲’이 ‘甲伊’로, ‘鄭順命’이 ‘鄭順朋’으로 나와 있다.

5) 『순조실록』권25, 순조 22년 11월 신유조, “命烈女朴氏旌閭 朴氏以士族孀婦 爲本部入金祖述所誣 遍 自裁潔身 而凶徒翻亂 獄情三年未得決 其奴萬石 飲泣屢籲 始得暴白 令禮曹稟處 萬石以忠奴 生前給復 死後旌閭”

경하여 바라는 침으로써 김조술의 죄상이 밝혀졌으며, 이 일로 박씨에게는 旌闕이 내려지고 만석은 부역을 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주인의 원수를 갚은 이야기는 충노담 중 비교적 서사성이 높은 것으로서 사건의 세부 정황을 寫實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흥미와 교훈의 자료로 널리 전승될 수 있었다. <柳灌의婢>의 말미에는 “친한 계집으로서 씩씩한 장부의 마음을 가졌으니 실로 공경할 만하다”는 평이 붙어 있다. 신분제의 이완으로 주인에게 대항하거나 도망하는 노비가 급증하던 시기에 이런 이야기가 사대부들 사이에서 널리 膾炙된 것은 그만큼 현실에서 忠奴를 찾기가 쉽지 않았음을 뜻한다. 요컨대, 이들 이야기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기대하던 바람직한 노비상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귀감의 자료로 여러 문헌에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주인을 의리로써 섬긴 이야기에는 <有成>(《송도기이》), <潘頤桴>(《어우야담》) 등이 있다. 이들 이야기는 奴主之分에 입각하여 주인을 의리로 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노비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노비에 대한 사대부들의 기본 인식도 앞의 작품들에 비해 매우 진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반석평은 실존 인물로 확인되며⁶⁾ 그의 실제 행적도 이 이야기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반석평>은 實事에 토대를 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有成>은 송도의 천민 유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유성이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도망노비라는 말을 듣고는 곧바로 주인택을 찾아가 그 동안 빌린 공물을 바치고 안주인을 정성껏 섬겼다. 안주인이 유성의 충심에 감복하여 임종시에 면천문서를 만들어 주어 주었으나 유성은 그것을 불사르고 힘을 다해 장례를 치른 후 삼년상을 모시고 죽을 때까지 主人家에 충성을 다했다. 이 작품의 서두에는 고을 원이 유성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를 軍

6) 潘頤桴은 중종 때의 문신으로 자는 公文, 호는 松崖, 시호는 壯節, 본관은 光州이다. 중종 2년(150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檢閱이 되었으며, 팔도의 관찰사를 역임하고 형조판서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성품이 온건하고 겸허하며, 청렴하고 근검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중종실록』에 의하면, 그는 “賤孽出身”이었는데 그의 조모가 그의 학문적 재능을 알고 가문을 일으키고자 몰래 서울로 데려가 길쌈과 바느질을 하며 공부를 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중종실록』권20, 중종 9년 2월 장유조.

簿에서 除名해 주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 면에서 <유성>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신분적 장벽을 제거해준 사대부의 진전된 의식이 돋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潘頰桴>은 宰相家の 노복 반석평에 관한 이야기이다. 반석평은 재상의 배려로 글공부를 한 후에 신분을 속이고 과거에 합격하여 팔도 관찰사를 두루 지내고 2품에 이르렀다. 나중에 재상이 죽고 그 자식들이 가난하게 되어 걸어서 다녔는데, 반석평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말에서 내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탄로되자 임금에게 사실을 실토하고 삭탈관직을 청했으나, 조정에서는 그를 장하게 여겨 높은 벼슬을 내렸으며 재상의 자식에게도 벼슬을 내려 주었다. 이처럼 이 작품 또한 능력 있는 노비에게 길을 열어 준 사대부의 진전된 의식이 돋보이며,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주인을 의리로 섬긴 노비의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도 매우 이채롭다.

앞서 검토된 작품 중에서 <유성>, <반석평>과 같이 주인을 의리로 섬긴 이야기는 본고의 논의 대상인 '박언립 이야기'와 同軌에 놓인다. 노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놓은 점, 노비가 주체적인 삶을 당당히 영위해 가는 모습 등이 작품의 저변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충노담에 형상화된 노비는 사대부의 계급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자기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데, 두 작품에 등장되는 노비는 그렇지 않다. 유성과 반석평이 자신들의 신분적·경제적 처지가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인을 섬긴 것은 기존 신분관계로의 복귀가 아닌, 가진 자의 여유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대부에 대한 평민의 세계관적 우위를 뜻하는 것이면서, 전통적 신분관계의 무력화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은 '박언립 이야기'에 발전적으로 수용되어 보다 분명한 의미망을 형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박언립 이야기'의 형성과 관련하여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작품이 있다. 《어우야담》의 <宋生奴>와 《기문총화》의 <一升僕>이 바로 그것이다. 두 작품 모두 밥을 많이 먹는 노복에 관한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다. <송생노>는 노복이 밥을 많이 먹자 주인이 그를 내보냈다는 내용인데, 이 작품은 거의 그대로 '박언립 이야기'의 서두에 수용되어 있다. 그리고 <일승복> 또한 '박언립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 김여물은 이시백과 함께 제해반정에 참여한 김류의 부친이다. 김류

와 이시백이 나란히 반정공신이 된 후에 김류 집안의 노복인 일승복에 관련된 이야기의 일부가 이시백의 처가 노복인 언립 관련 이야기에 묻어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Ⅲ. ‘박언립 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

‘박언립 이야기’는 延陽君 李時白(1592~1660)의 妻家 奴僕인 彦立의 奇行을 다룬 이야기이다. 이에 해당되는 작품으로는 ① <奇奴1>(난실만필), ② <奇奴2>(난실만필), ③ <延陽君李時白>(학산한언), ④ <延安李相公時白>(기문총화), ⑤ <延安李相公時白>(해동기화), ⑥ <延安李相公時白>(청야담수), ⑦ <成家業朴奴盡忠>(청구야담), ⑧ <薪奴擔梨得郎材>(동야회집), ⑨ <成家業朴奴盡忠>(해동야서), ⑩ <延平李忠定公貴>(박소춘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박언립 이야기’가 많은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조선후기 사대부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거리로 널리 膾炙되었음을 의미한다.

①②는 《蘭室漫筆》에 ‘奇奴’라는 題名 하에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박언립 이야기’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문헌에 정착된 작품이다.⁷⁾ 《난실만필》의 편자는 당시 세간에 떠돌던 ‘박언립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전해듣고 그 중 하나를 기재한 다음, 이것 외에 이시백의 결갈래 자손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며 함께 소개해 놓았다. 편자는 두 이야기가 원래 서로 다른 것이었는데,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잘못 합쳐진 것이라 추정⁸⁾하고 있다. 그러나 ①②는 《난실만필》의 편자가 18세기 당시 세간에 널리 전승되던 ‘박언립 이야기’를 각기 다른 사람에게 전해듣고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한데 합쳐진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가 유전되는 과정에서 이질성을 띠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蘭室漫筆》은 편자 미상인데 대략 1777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현룡, 『한국문헌실화』5(건국대 출판부, 2000), 24면 참조.

8) “余旣成此記 而又有人傳延陽家奴某乙事 與此大同小異而其首尾全別 意者 二事各相傳說 久而漸訛合而爲一歟 其說人實得於延陽傍孫諸李而傳之於余 尤爲眞的可信”,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12, 계명문화사, 1987, 273~274면.

③은 《鶴山閑言》의 편자 辛敦復(1692~1779)의 생몰 연대를 감안해 볼 때 ①②와 비슷한 시기인 18세기 후반쯤 문헌에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④⑤⑥⑦⑧에도 거의 그대로 轉載된 점으로 보아 '박언립 이야기'의 문헌전승 과정에서 후대의 야담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된다.⁹⁾ 때문에 ③~⑧ 중에서는 ③을 대표적인 유향으로 보아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¹⁰⁾ ③은 ①⑨⑩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유향으로 다룰 수 있다.

⑨는 《海東野書》에 수록되어 있다. 《해동야서》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는 제목과 내용을 《청구야담》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 많다. 그런데 ⑩의 경우 제목은 《청구야담》의 것(⑦)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내용은 오히려 《난실만필》의 <奇奴1>(①)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으며, ①⑦에 없는 내용도 있다. 《해동야서》의 편자는 ①⑦을 참고하되 나름의 생각을 덧붙여서 ⑩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⑩도 독자적인 유향으로 간주하여 앞의 ①②③⑨와 함께 대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⑩이 수록된 《樸業村話》는 英祖朝에 공조판서를 지낸 良靖公 李基翊(1653~1739)의 曾孫 중 누군가에 의해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¹⁾ 이 야

- 9) 이들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맨 처음 ③의 '박언립 이야기'가 ④에 그대로 轉載되었고, ④는 다시 ⑤⑥에 그대로 전재되었다. 때문에 ③④⑤⑥ 사이에는 몇몇 글자의 차이 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비해 ⑦은 ③을 수용하면서 서두부와 결말부를 나름대로 바꾸어 놓았으며, ⑦은 다시 ⑧에 수용되면서 약간 변개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학산한언》의 '박언립 이야기'는 후대의 문헌전승 과정에서 《기문총화》 계열과 《청구야담》 계열로 나뉘어졌음을 알 수 있다.
- 10) 앞으로 별다른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③의 특징에 대한 언급은 ④~⑧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 11) 《박소촌화》는 아직 학계에 공식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필자가 본 것은 임형택 교수 소장본인데 이현홍 선생님을 통해 구하게 되었다. 《박소촌화》의 125화와 152화에는 “我曾王考良靖公”이라는 구절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에 의하면 《박소촌화》는 영조 때의 문신이었던 良靖公 李基翊의 증손 중 누군가에 의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47화에는 “余以英爾丁未生于王考振威任所”란 구절이 있고 580화에는 “余年將七十 閱歷世事者”란 구절이 있는데, 이에 근거하면 편자는 영조 丁未年인 1727년에 출생한 자로서 나이 70세를 넘기지 않은 시기인 1795~1796년 사이에 《박소촌화》를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소촌화》의 편찬자와 편찬시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담집 426화에는 “余自壬午歲僑居于德山嘉谷 則羅朴所面伽倻洞…余自卜居以嘉谷名所居地羅朴所 餘地勝覽云乃朴所 余暮年亦號樸素村葛山”이란 구절이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박소촌화》의 ‘樸素’는 편자가 만년에 寓居하던 곳의地名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박소촌화》는 총 611편이나 되는 방대한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점, 18세기 후반에 편찬되었고 편찬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점, 다른 야담집에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는 점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귀중한 야담집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수록된 ‘박언립 이야기’는 다른 야담집 소재의 그것에 비해 가장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독립된 유향화로 다룰 만하다.

이상과 같이 ‘박언립 이야기’의 유향들 중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① ②③④⑩이다. 이 중에서 ③은 가장 온전한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후대의 야담집에 거의 그대로 전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③을 기준으로 삼아 각 유향들을 상호 대비적으로 살펴보면 ‘박언립 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를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③을 중심으로 ‘박언립 이야기’의 줄거리를 삽화 단위의 단락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언립은 힘이 세고 사나워 상전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 (나) 상전이 죽자 직접 비용을 마련하여 정성껏 장례를 지냈다
- (다) 주인 가족을 이끌고 시골로 이사한 후 부지런히 일해 부자가 되었다
- (라) 다시 서울로 올라가 이시백을 천거하여 주인 딸과 혼인시켰다
- (레) 이시백이 반정을 도모하자 계책을 알려주고 자신은 만일을 대비했다
- (로) 반정 성공 후 언립은 면천되어 공주로 내려가 모친가가 되었다

이와 같이 ‘박언립 이야기’는 모두 여섯 단락으로 정리되는데, (가)와 (로)는 각각 서두와 결말에 해당된다. 그리고 (나)~(레)는 노복 언립의 행적담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각기 하나의 독립된 삽화를 이루고 있는데, (라)는 治喪挿話, (레)는 致富挿話, (로)는 婚姻挿話, (레)는 反正挿話로 볼 수 있다. 각 삽화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만, 삽화끼리의 유기적 관련도 매우 긴밀하여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노복 언립의 특이한 행적을 선명히 부각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가)는 노복의 이름과 성격을 밝히는 부분이다. ③~⑧에는 奴名이 彦立이라

는 점, 그가 李時白 妻家의 노복이며 밥을 많이 먹는다는 점과, 평소 게으름을 피우다가도 한 끼를 잘 먹여주면 산에 가서 나무를 뿌리째 뽑아온다는 점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이에 비해 ①⑨에는 노비가 사납다는 점만 간략히 언급되어 있으며, ②⑩에는 노비의 성격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다. 그리고 奴名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①②⑨⑩이 모두 같다. 특히 ⑩의 경우, 다른 유헬화는 달리 노복의 주인댁 사위를 이시백 대신 그의 부친 이귀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노복도 이시백이 아닌 李貴의 妻家 노복인 점이 특이하다. 평소 밤만 축내며 말을 전혀 듣지 않던 노복이 결정적일 때 主人家를 위해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박언립 이야기'의 핵심 내용임을 감안할 때, ③의 서두가 가장 효과적이고 짜임새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나)는 언립의 상전이 죽자 언립이 성심을 다해 주인의 장례를 치루는 과정에 관한 삽화이다. 노복이 장례비를 구하는 방법 및 구체적인 장례의 과정은 유헬화에 따라 차이가 많다. ③에는 노복이 주인집의 옷가지와 그릇 등을 팔아서 장례비를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①⑨에는 노복이 이웃의 부잣집에서 강도짓을 하여 마련한 것으로,¹²⁾ ②에는 노복이 주인의 친구들에게 부고를 돌리고 부조를 받아 마련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장례를 치루는 과정과 관련하여 노복이 匠人을 구해 판을 짜고, 地師를 데려와 묘터를 잡고, 이웃의 부녀들을 불러 상복을 짓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③~⑧에만 나와 있으며 다른 유헬화에는 이 부분이 매우 간략하거나 아예 나타나 있지 않다. 이로 볼 때 '박언립 이야기'는 《학산한언》계열의 ③~⑧을 중심으로 초기의 모습이 후대로 온전히 전승되는 한편, 《난실만필》의 ①②, 《해동야서》의 ⑨와 같이 다소의 변이과정을 겪은 유헬화들도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⑩에는 장례삽화가 나오지 않는다.

(다)는 노복 언립이 주인의 가산을 일구는 삽화이다. ②~⑧에는 노복이 장례를 마친 후에 주인 가족을 이끌고 시골로 이사하여 부지런히 농사일에 힘쓰므로써 몇 년 뒤에 큰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①⑨에는 노복이 혼자 집을 나가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①에는

12) ①이 그 과정을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음에 비해 ⑨는 매우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다.

노복의 상행위를 통한 致富過程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노복은 산골의 나무를 바닷가의 소금과 맞바꾸는 것으로 시작해서, 북으로 6진 지방과 서로는 평안도 강변 7읍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재산으로 제주도, 동래 왜관, 조령, 충청도, 전라도를 넘나들며 온갖 물산들을 모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 시세 차액을 남기는 등의 수법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¹³⁾ ‘박언립 이야기’ 유화 중 유독 ㉑에만 이러한 상행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은 농업보다 상업이 치부의 수단으로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박언립 이야기’ 전승자들의 경제관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㉒에는 앞의 장래삼화와 함께 치부삼화도 아예 나오지 않는다.¹⁴⁾ 이는 ‘박언립 이야기’가 구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자연스런 변화라기보다 《박소춘화》의 편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전해들은 ‘박언립 이야기’의 내용 중 혼인삼화와 반정삼화만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이 점은 ㉑와 ㉒를 살피는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㉑는 언립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인 딸을 이시백과 혼인시키는 삼화이다. ㉑~㉒에는 언립이 주인 딸의 혼사를 위해 안주인의 戚叔을 중매로 끌어들이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노복은 주인댁이 門閥임을 내세우기 위해 당시 승지로 있던 戚叔을 主人家에 수시로 내왕케 하여 잘 대접해서 보낸다. 그리고 승지와 안주인이 남매처럼 친해진 연후에 승지로 하여금 李貴에게 칭찬하게 하여, 마침내 주인 딸을 이귀의 아들 이시백과 혼인시킨다. ㉒을 제외하면 모든 유화에 이 삼화가 공통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박언립 이이

13)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다. 致富談으로 불려지는 이들 이야기는 전통적 신분관념이 붕괴되고 새로운 물질적 가치관이 대두되는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관해서는 신선희, 「古典小說에 나타난 富의 具現樣相과 그 意味」(이화여대 박사논문, 1990) ; 이현국, 「물질문제를 다룬 고전소설의 성격과 의미」(경북대 박사논문, 1991) 등을 참조.

14) 《박소춘화》 소재 ‘박언립 이야기’는 다른 유화들과 달리 혼인삼화와 반정삼화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삼화들이 생략된 대신 혼인삼화와 반정삼화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화들에 비해 내용이 길고 구성도 뛰어나다. 이 점에 관해서는 뒤에서 상론할 것이다.

기'의 전승과정에서 혼인삼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③~⑧의 경우, 이시백과 주인 딸의 혼사에서 승지의 역할이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자 이들 유화는 언립이 직접 나서 배장수를 하며 다니다가 우연히 이시백을 발견하여 주인댁의 사윗감으로 천거하는 장면을 별도로 설정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다른 유화에 비해 혼사과정에서 노복 언립의 주도적 역할을 훨씬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⑩은 ①~⑨의 유화들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 작품에는 주인의 사위가 이시백에서 이귀로 바뀌어 있으며, 노복이 李廷華의 막내 아들인 李賁를 천거한 후에 자신이 직접 이정화를 찾아가서 혼인 약속을 정하며, 승지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이는 '박언립 이야기'의 유화들 중 노비의 역할이 가장 극대화된 예라 할 수 있다.

⑨는 이귀와 이시백 부자가 함께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공신이 된다는 이른바 반정삼화이다. 이 반정삼화도 앞의 혼인삼화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화에 공통적으로 수용되어 있어서 '박언립 이야기'의 구성에서 매우 비중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시백이 부친 이귀, 김류 등과 함께 癸亥年에 반정을 도모할 때, 노복 언립에게 같이 참여할 것을 권유하며 성공여부를 물었다. 이에 언립은 반정이 성공할 것이라 말하고, 짐을 떠나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무인도에 곡식을 마련해두는 한편 배를 경강에 대어놓고 돌아왔다. ②~⑧에는 이런 내용이 온전히 나오는데, ①⑨에는 언립에게 반정 참여를 권유하는 대목 및 그 성공여부를 묻는 대목이 없고, 실패를 대비해 무인도에 쌀을 마련해두고 경강에 배를 준비시켜 놓았다는 대목만 있다. 그리고 ⑩에는 이 부분이 아예 설정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①⑨⑩에는 반정 모의와 관련된 주인과 노복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①⑨에는 이시백이 반정 모의에 가담하고 있음을 눈치 챈 노복이 이시백에게 칼을 들이대며 경솔함을 꾸짖는 대목이, 그리고 ⑩에는 이귀가 반정 계획을 알고 있는 노복을 長劍으로 위협하는 대목이 각각 설정되어 있다. 이 부분은 ①⑨⑩에만 나오는데 유독 ⑩에서만 칼을 들이대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바뀌어 있다. 이것은 구전 단계에서의 무의식적 변화라기보다 《박소춘화》 편자의 의도적 개작으로 보인

다. ①을 수록한 《난실만필》의 편자가 18세기 당시 구전으로 떠돌던 ‘박언립 이야기’ 중 두 유향을 선별하여 충실히 기재해 놓은 사실과 함께 ⑨의 경우 서두와 결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을 ①에서 수용한 점을 고려해볼 때, ①⑨의 主-奴 갈등 부분은 구전 이야기에 충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건의 정황으로 보아, 원래 노복이 반정을 도모하려는 주인의 경솔함을 꾸짖기 위해 칼을 들이던 것일 터인데, 여기에 거부감을 가진 《박소촌화》의 편자가 이 부분을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닐까 한다. 요컨대 지배-복종의 관계에 있는 주인과 노비 사이에서 그 같은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박소촌화》 편자의 사대부적 윤리관이 작용되어 그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⑩의 노복은 앞의 혼인삼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과 달리, 반정삼화 부분에 이르러 그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⑩에는 ①~⑨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이 하나 더 설정되어 있으니 거사 일시를 정하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이 대목의 줄거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귀가 동류들과 함께 반정 모의를 하고 다니자 이를 눈치 챈 노복이 수상이 여겨 이귀를 다그쳤다. 이귀가 처음에는 놀라 칼로 노복을 위협하다가, 결국 노복에게 사실을 실토하고 거사 일시를 정해달라 하였다. 이에 노복은 영남에 사는 정선비를 소개하며, 그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오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귀는 그의 말대로 정선비를 찾아가 하룻밤 유숙하였는데, 괴물같이 생긴 정선비의 두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엿듣다가 3월 12일 某時가 吉時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돌아온다. 이귀는 정선비의 아들이 말한 그 일시에 거사하여 마침내 반정에 성공하게 된다.¹⁵⁾

15) 임형택 소장본 《樸素村話》 <延平李忠定公貴>, “及忠定參伊霍議 奴知之 乘夜潛謁曰 上典方有大計 以此用心 咳唾之聲亦異平時 此事 小人不可不與知 忠定心自驚 置長劍于膝底答曰 吾與爾密語 汝可入房 奴曰 上典欲殺小人而小人不可殺也…上典曰 劍雖在側 寧可殺汝也 卽推窓擲地 奴遂入房 遂告以實…與其奴謀曰 吉日則汝可卜矣 奴曰 小人雖粗解天時 此何等大事而乃敢以賤人當此大事乎 嶺南某邑 有鄭哥兩班 小人請納千里名騾矣 願及某日 到其家一宿 則雖無所問 自可得吉日而還矣 其主如其言 訪鄭姓人 自云過客 請寄食 房中有兩箇物 非狗非猫非羊非豬 授之以飯則食之 其狀不忍正視…兩童相語曰 汝知彼客乎 弟曰 李貴也 兄曰 來何故也 弟曰 方欲得反正吉日而來矣 兄曰 汝亦能知之矣 然則何日爲吉 弟曰 三

이 대목은 다른 유화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⑩만의 특징인데 아마도 《박소촌화》의 편자가 癸亥 反正을 미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민 것으로 추정된다. 편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이로 하여금 이귀가 반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 그 반정이 성공할 것이란 점, 반정 모의가 오로지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란 점 등을 직접 말하게 함으로써 인조반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와 같이, '박언립 이야기' 유화를 중 ⑩이 가장 많은 번이를 보이게 된 것은 《박소촌화》의 편자가 혼인삼화와 반정삼화만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되,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이를 독자적으로 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인조반정을 긍정적으로 그려놓은 것은 《박소촌화》의 편자가 반정을 통해 집권한 중종의 후손이라는 사실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⑩은 편자의 개입이 심해 '박언립 이야기' 유화를 중 가장 파격적으로 재창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배)는 결말부에 해당된다. ③~⑧에는 반정 성공 후에 이시백이 언립을 면천시켜 주었으며, 언립은 公州로 내려가 대대로 이시백 先塋의 묘지기가 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②⑩에는 주인이 면천시켜 주려는데 노복이 이를 거절하고 공주로 내려가 묘지기가 된 것으로, ①⑨에는 노복이 主人家에 빛을 갚았다거나 할 일을 다했다며 표현히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③의 결말부가 일반적으로 전승된 내용이라면 ①②④⑩의 결말부는 '박언립 이야기'의 구전이나 문헌전승 과정에서 신분제를 바라보는 향유자들의 상이한 시각에 따라 나타나게 된 변화로 볼 수 있다.

앞서 검토된 것을 종합하여 '박언립 이야기'의 문헌전승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의 세 계열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학산한언》 계열을 들 수 있다. 《학산한언》의 편자 신돈복은 18세기 당시 구전되던 '박언립 이야기'를 직접 전해듣고 이를 문헌에 기재한 것

月十二日某時吉矣 兄曰 日則可 時則不可 此時稍急而事難即成 某時爲吉 弟曰 果然 忠定穴窺見 則兩箇奇男子也 非復日夕之兩物…曰吾事可成乎 日可成矣 忠臣也 一笑而不復言 忠定卽起而不爲主人 策蹻而還 奴迎拜曰 吉日云何 曰某日也 奴遂左右周旋 忠定用其謀云"

으로 보인다. 그 후에 이 이야기는 《기문총화》를 거쳐 《청야담수》, 《해동기화》로 이어지는 한 계열과, 《청구야담》을 거쳐 《동야회집》으로 이어지는 다른 한 계열로 다시 분화된다. 두 계열은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서두와 결말에서 분명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학산한언》 계열의 '박언립 이야기' 유화는 모두 6편인데 문헌으로 전승된 유화들 중에는 가장 많은 수를 보인다.

둘째, 《난실만필》 계열을 들 수 있다. 《난실만필》에는 두 유화가 실려 있는데, 편자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들은 것을 기록한 것인데도 대체적인 내용은 서로 유사하다. 특히 <奇奴1>의 내용은 《해동야서》의 유화에도 변용되어 있기 때문에, 《해동야서》의 유화는 제목과 결말 부분을 《청구야담》에서 가져오고, 전반적인 내용은 《난실만필》 소재의 <奇奴1>을 변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난실만필》 계열에는 노복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다.

셋째, 《박소촌화》 계열을 들 수 있다. 《박소촌화》의 유화는 편자가 당시 구전되던 '박언립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화들에 비해 파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계열은 이시백을 이귀로 바꾸어 놓았으며 대체적인 이야기가 혼인삼화와 반정삼화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박언립 이야기'는 그것이 생겨난 이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전되면서 크고 작은 변이과정을 겪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박언립 이야기'에 해당되는 10편의 유화들 중 《학산한언》 소재의 ③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보인다. ③에는 (개~배) 단락이 온전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노비의 행적을 그의 기이함에 초점을 맞춰 비교적 담담하게 서술하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그에 비해 ①②④⑩은 (개~배) 단락 중 일부를 생략 혹은 축소하여 각 삼화들간의 균형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박언립 이야기'의 구전과정에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구전 이야기를 문헌에 기재한 야담 편자들의 관심도에 따라 나타난 변화로도 볼 수 있다.

IV. '朴彦立 이야기'에 나타난 士大夫의 奴婢觀

忠奴에 관한 이야기는 '박언립 이야기' 외에도 많은 작품이 있다. 그럼에도 유독 이 작품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노복 언립의 신기한 행적에 마음이 끌린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주인을 충심으로 섬기면서 여러 난관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간 노비의 당당한 모습에서 오히려 씩씩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봉건적 신분제의 질곡에도 전혀 변민하지 않고 자기 직분을 충실히 이행한 노복 언립에 대해 《난실만필》의 편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조 초기에는 남쪽의 왜란이 평정되고 북쪽에서 병란이 있을 무렵이라 잔사로 인재를 등용해야 할 때였다. 하찮은 제주라도 오히려 놓쳐서는 안되는데 하물며 이 종과 같이 뛰어난 재주와 웅대한 자락이 있는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랴. 某公도 이미 잘 알고 있던 터에 썩어 썩한 신분을 벗겨주어 쓰지 않고 스스로 떠나가지 내버려 두고서 조금도 근심하지 않는가. 아까운 인재를 버림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이는 모두 틀에 박힌 제도에 얽매어 인재를 구하는 잘못 때문이다.¹⁶⁾

이와 같이 《난실만필》의 편자는 뛰어난 인재를 두고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발탁해서 쓰지 않는 조선의 잘못된 인재등용 방법을 비판하고 있으며, 노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떠나게 내버려 둔 주인의 우매한 처사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설사 이 종이 세상에 쓰여진다 해도 다른 사람의 수하에 들어가 구속을 받아서 반드시 하늘을 가리울 만한 포부와 별을 따올 만한 지략을 펴보지 못할 것”¹⁷⁾이라며 대책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언립이라는 동일 인물에 대해 《학산한언》의 편자가 “其奴有藻鑑 且有陶朱之術”이라 하여 노복의 知人之鑑과 蓄財

16) “我長陵之初 甫虞新藪 北贊方構 此正用人之時也 鷄狗之技 尚不可遺 況如此奴之長材偉略 某公亦已測之矣 何不爲洗棧泥塗蕪沫而用之 任其自去 不少吝惜 抵璧沈珠 卽今一轍 良可嘆也 此皆求人於規矩繩墨之內之過也”, 鄭明基 編, 『韓國野談資料集成』12, 啓明文化社, 1987, 274면.

17) “假使此奴見用於世 不過爲人幕屬 受其絆繫 必無得以展垂天之翼 騁奔星之蹄矣”, 앞의 책, 같은 곳.

術을 언급하고 말 정도로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관심을 보인 반면, 《난실만필》의 편자는 '박언립 이야기'를 통해 조선시대의 신분제 및 인재등용제도의 문제점을 들추어 비판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야담 편자들이 이야기를 수용할 때 그것을 대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앞장에서 검토된 《어우야담》 소재의 <반석평>에도 신분제의 모순에 대한 편자 유몽인의 시각이 '고흥 유씨'의 딸이라며 소개되어 있다. 노비를 바라보는 관점이 《난실만필》의 편자와 상통되는 면이 있어 여기에 소개해볼 만하다.

우리 동방의 땅은 치우쳐 있고 작아서 인재의 산출이 중국의 천분의 일도 되지 못하는데다 기자(箕子)가 남긴 법에 국한되어 노비가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현자(賢者)를 세움에 출신을 따지지 않는 것이 삼대(三代)의 성법(成法)인데도,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방한(防閑)이 매우 견고하니, 사대부의 의론은 편협하고도 시기심이 많다.¹⁸⁾

조선의 인재등용에 신분적 제한이 너무 심하다고 비판한 이 진술은 노비에 대한 사대부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¹⁹⁾ 《어우야담》이 후대의 야담집에 끼친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런 추정이 가능하며, 앞서 살핀 《난실만필》의 기록도 《어우야담》의 이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반석평이 노비의 신분으로 고위 관직에까지 이르자, 이에 대한 臺諫들의 비난과 탄핵이 끊이지 않았음²⁰⁾을 고려할 때, 사대부로서 이런 생각을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經國大典』에는 노비의 신분세습에 대해,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노비이면 그 자녀도 노비의 신분을 이어받도록 규정되어 있다.²¹⁾ 그러다가 『續大典』에 와서 '奴娶良女所生 從父役'을 '從母爲良'으로 고침으로써 '從母/從父法'이 '從母法'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지배층은 노비가 원래 범죄자의 후손에서 나왔으며, 고조선 이래로 그와 같은 노비제가 정착되어 主奴關係가 엄정히 유지되어 왔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노비제를 정당화하는 주요한 논리로

18) 사귀선·이월영 역주, 『어우야담』(한국문화사, 1996), 145면.

19) 김현룡, 『한국문헌설화』2(건국대출판부, 1998), 492면.

20) 『중종실록』의 곳곳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21) 『經國大典』5, 刑典 公賤條, “凡賤人所孫 從母役 唯賤人娶良女所生 從父役”.

삼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노관계를 군신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綱常과 名分이라는 인문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노비에게 절대 복종을 이끌어내는 바탕으로 삼았다.²²⁾ 때문에 조선시대 지배층이 가장 바람직한 노비의 유형으로 기대한 것은 진심으로 성의를 다하여 상전을 섬기고, 상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충직한 노비였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이나 개인 문집 등에는 이와 같은 주노관계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忠奴의 사례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앞서 살핀 충노담에서도 드물지 않게 확인된다.

조선조 사대부들의 노비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주인 몰래 도망하거나 주인에게 대항한 노비는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재발방지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私奴婢가 도망을 해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이 조선후기 사대부들의 현실적 처지였으니,²³⁾ 逆奴를 처벌하여 신분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인을 충심으로 섬긴 노비에게는 免賤 등의 恩典를 베풀어 다른 노비의 충성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면천된 노비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별다른 파급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조선조 사대부들은 恩威並行이라는 방법을 통해 노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해보려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분제의 해체와 노비의 이탈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렇게 볼 때, 충노담에 형상화된 노비는 조선시대의 주된 노비소유주였던 사대부들에게 바람직한 노비의 한 전형으로 비취졌을 것이다. 각종 야담집에 충노담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같은 노비를 갈망하는 사대부들의 소망이 그만큼 실질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그들은 충노담을 대하면서 노비의 현실적 처지와 신분제의 모순에 관해 생각하기보다 바람직한 노비상을 그려보는 데 더 관심이 쏠렸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충노담은, 그것이 비록 實事에 토대를 둔 이야기일지라도, 신분질서의 동요를 원치 않던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원망이 투영된 것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서 살핀 《蘭室漫筆》 소재 '박언립 이야기'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22) 지승중,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일조각, 1995), 288~294면 참조.

23) 전형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일조각, 1989) ;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연구』(집문당, 1997) 등에 이런 문제가 상세히 검토되어 있다.

노비에 대한 통념을 극복하고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라 이를 만하다. 편자는 단순히 노복의 奇行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용맹과 지략을 겸비한 노복의 능력이 세상에 쓰이지 못하게 된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못되고 개으른 자를 가리켜 반드시 종놈이라 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조롱할 때면 반드시 종놈의 재간이라고 한다. 종들이란 거의가 우둔한 것들이어서 사람들이 천시하는데, 중국에서도 예로부터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심하여 종들이라던 마치 개돼지나 마소처럼 대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도 어찌 영웅호걸의 자질을 타고난 자가 없겠는가. 하늘이 인재를 낼 때는 원래 문벌을 가리지 않았다.²⁴⁾

허균의 <遺才論>을 방불케 하는 위의 언급은 《蘭室漫筆》의 편자가 '박언립 이야기'의 서두에서 노비를 천시하는 조선시대의 사회적 통념을 비판한 것이다. 노비를 천대하는 풍조가 중국보다 심하다는 것은 조선에만 존재했던 노비신분제습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터, 편자는 그 때문에 재능 있는 노비가 세상에 전혀 쓰일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박언립 이야기'를 《난실만필》에 기재한 이유를, 이야기 속의 노복이 이 세상에서 한 번 밖에 볼 수 없는 뛰어난 인물인데도 그 사적이 전하지 않아 애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⁵⁾ 한 인물의 일생을 기술하는 傳에나 나올 법한 이러한 언급으로 보아, 《난실만필》의 편자는 마치 역사를 기술한다는 자세로 '박언립 이야기'의 기술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노담 중에서 노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토록 긍정적이고 진진된 작품을 달리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난실만필》 소재 <奇奴1>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24) “人之倖慢者 必曰奴隸 嘲愚庸者 必曰奴才 人家賦獲 率多雖蠢 爲人所賤 在中華自古已然 而東俗尤甚 賤踏之殆 若犬彘牛馬然 然此輩中 亦豈無英雄魁傑之姿哉 天之生才 本不擇地”, 鄭明基 編, 『韓國野談資料集成』12, 啓明文化社, 1987, 268면.

25) 앞의 책, 269면.

V. 결 론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에는 노비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노비는 다른 천민과는 달리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의의를 인정받기 때문에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을 때 노비이야기는 忠奴談, 逆奴談, 忠奴·逆奴談 등으로 나뉘어진다. 본고는 忠奴談 연구를 위한 試論으로 우선 '朴彦立 이야기'를 검토해 본 것이다. 앞서 논의된 것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겠다.

'朴彦立 이야기'는 忠奴談의 서사적 전통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李時白의 妻家 奴僕인 朴彦立의 실제 행적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형상화에는 전래하던 <有成>(송도기이), <潘碩杵>(어우야담), <宋生奴>(어우야담), <一升僕>(기문총화) 등의 忠奴談이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된다.

문헌에 수록된 '박언립 이야기'는 모두 10편인데, 이들은 야담 편자의 시각이나 관심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 변이양상을 세 계열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학산한언》 계열이다. 《학산한언》의 편자는 18세기 당시 구전되던 '박언립 이야기'를 직접 전해듣고 이를 문헌에 기재하였다. 그 후 이 이야기는 《기문총화》를 거쳐 《청야담수》《해동기화》로 이어지는 한 계열과, 《청구야담》을 거쳐 《동야회집》으로 이어지는 다른 한 계열로 분화된다. 두 계열은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서두와 결말에서 분명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학산한언》 계열의 '박언립 이야기' 유화는 모두 6편이며 문헌으로 전승된 유화들 중 가장 많은 수를 보인다. 둘째, 《난실만필》 계열이다. 《난실만필》에는 두 유화가 실려 있다. 편자가 서로 다른 경로로 전해들은 것을 기록한 것인데도 대체적인 내용은 서로 비슷하다. 특히 <畜奴1>의 내용은 《해동야서》의 유화에도 변용되어 있다. 《해동야서》의 유화는 제목과 결말 부분을 《청구야담》에서 가져오고, 전반적인 내용은 《난실만필》 소개의 <畜奴1>을 변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난실만필》 계열에는 노복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다. 셋째, 《박소춘화》 계열이다. 《박소춘화》의 유화는 편자가 18세기 당시에 구전되던 '박언립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화들에 비해 파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계열은 이식백을 이귀로 바꾸어 놓았으며, 대체적인 이야기가 혼인삼화와 반정삼화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언립 이야기' 중 《난실만필》 소재의 <奇奴1>에는 노비에 대한 사대부의 시각이 매우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난실만필》의 편자는 '박언립 이야기'를 통해 조선시대 신분제의 모순과 인재등용제도의 문제점을 들추어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에만 존재하는 노비신분세습으로 인해 아까운 인재들이 초야에 묻혀 지내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어우야담》 소재 <반석평>에서 부분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반석평>, <奇奴1>에 이르러 충노담은 더 이상 사대부적 계급이데올로기에 머물리지 않고 노비를 하나의 개체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s>

The variations and meanings of "Park, Un-leep's Story"

Jeong, Jun-sik

According to the literature on slave story, there are "Chung No Dam(忠奴談)", "Yeok No Dam(逆奴談)" and "Chung No Yeok No Dam(忠奴·逆奴談)" and so on. "Park Un leep Story(朴彦立 이야기)" this these has studied applied to a standard of "Chung No Dam". On the basis of "Park Un leep Story", this work has made an attempt to connect the forming context with the tradition of "Chung No Dam". It has scrutinized the variations and meanings of tales and also examined thought of slave system by the intelligent

There are the stories that servant is taking revenge for master, rescuing the one in danger, and serving him with all faithfulness in "Chung No Dam". Among them, the works which had affected "Park Un Leep story" were the ones serving with all faithfulness like "Ban Suk Pyong(潘碩枿)", "Yu Seong(有成)".

"Park Un Leep story" has come down with 10 kinds of tales, and the differences of these tales are big. Therefore, we can guess that these tales has been reverted in accordance with the views of people in the process of hand down.

The attitude and thoughts of servants by the rich and intelligent were greatly progressed in "Ki No<奇奴>" used as a material of "Nan Shil Man Phil(蘭室漫筆)". This work was sorry that a servant of ability was ignored at that time. Also it made an direct effort to criticize irrational social status.